



정교회 한국대교구 2021년 31째주 (8월 1일)

정교회 주보



성 살로메 향유가진 여인

마태오 제 6주일

마카베오의 7인 순교자와 그들의 어머니 솔로모니

제 5조, 조과복음 6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제 5조 부활 찬양송 / 82, A 215

•주일 입당송 / 14, A 42

•순교자 찬양송 / 84, B 265

•성당 찬양송

•주 변모 축일 시기송 / 178, B 183

•사도경 : 로마서 12:6~14 / 봉독서 162

•복음경 : 마태오 9:1~8 / 111, B 40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교회의 기혼 성인들



성 살로메 향유가진 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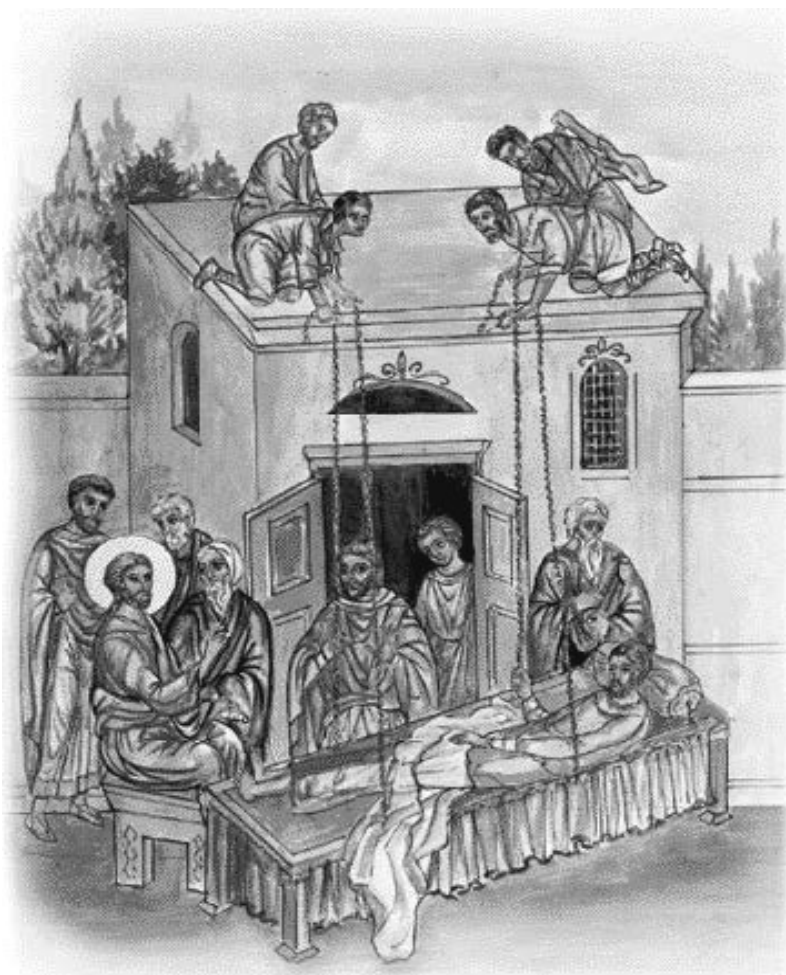
우리 교회에서 8월 3일 축일로 기념하는 향유가진 여인 성 살로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편 제베대오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경건하고 열렬한 믿음의 살로메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성들 중 한 사람이었고 다른 교회와 신자들과 사람들을 도우는 사도들의 기금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살로메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모성애로 자신의 아들들을 가장 중요한 직분으로 영예롭게 해주실 것을 주님께 간청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왕좌를 다시 부활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로메는 주님의 끔찍한 수난 때, 다른 제자들은 무서

워 흩어져 숨어있을 때, 믿음이 굳건한 다른 여인들과 함께 슬픔으로 가슴을 치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한 살로메는 천사가 예수의 부활을 알린 향유가진 여인 중의 한 사람으로 합당하게 된 여인입니다. 예루살렘에 그리스도교 교회가 세워진 후에도 살로메는 그녀의 자선활동과 열정으로 계속해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에 살로메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특히, 헤로데가 그녀의 첫째 아들인 야고보를 처형했을 때 비통함에 그녀의 심장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대가 그녀를 굳건하게 해주었고, 평화롭게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웃에 대한 믿음과 사랑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장인 가파르나움으로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더 이상 설 자리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문 앞까지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이때 네 명의 동네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주님께 보이기 위해 들것에 실어 데려왔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미 문 앞부터 가득 찬 상태여서 그들을 뚫고 들것을 옮기는 일은 불가능 하였다. 이러한 난관 속에서도 그들은 병자를 주님 가까이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이들은 지붕을 벗겨내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내려 보냈다. 이러한 열정적인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서는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는 곧바로 일어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걸어서 밖으로 나가는 기적을 보여주셨다.



이러한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신 일은 단순히 불편한 환자의 몸을 낮게 해 주시고 중풍병자가 스스로 걷고 움직일 수 있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단순한 기적의 사건이 아니다. 먼저 주님은 그 사람들의 진실한 믿음을 보셨고 이들의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

교회에서는 주님의 기적을 바라며 아픈 사람의 죄 사함과 치유,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한다. 구원은 혼자서 자신을 위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할 때 이루어진다. 내 가족, 내 이웃이 어려움에 봉착하여 힘들어하고, 병으로 고통 받을 때 그들을 위해 믿음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위로해 준다면 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깜짝 선물처럼 구원은 찾아온다.

교회 교부들과 성인들께서는 평생을 자기 자신보다 기도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다. 또한 인류의 죄 사함과 화해를 위해 기도하신다. 오늘날에도 많은 병자들이 성인, 교회 지도자, 이웃의 기도를 통해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종종 이루어진다.

우리도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이웃을 위해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삶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타인을 위한 기도가 이루어 질 때 우리의 죄도 사함을 받게 된다. 타인을 위한 기도가 결국은 나를 위한 기도가 되는 천상의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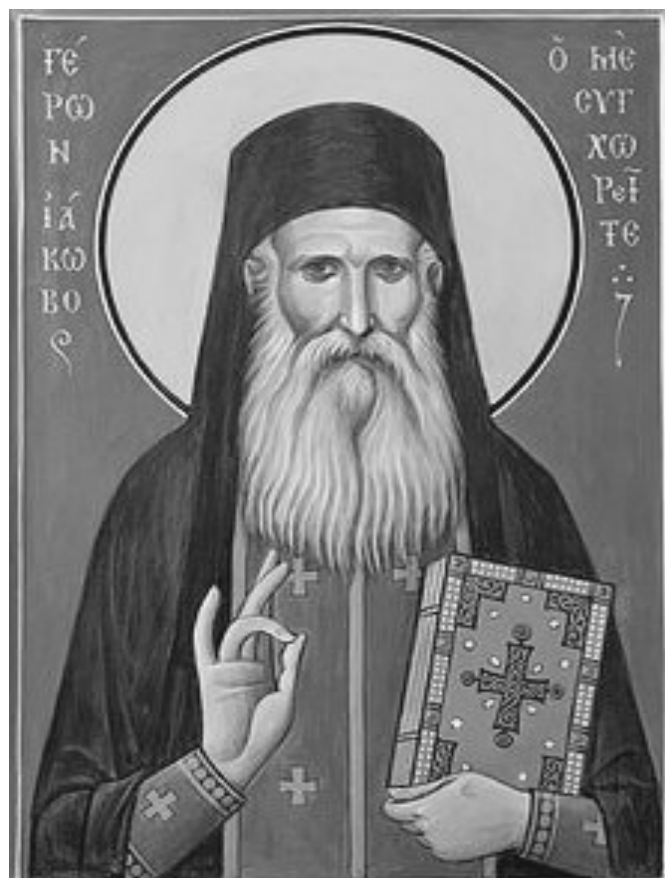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에비아의 야고보스 성인 (1920-1991)3

성인이 안식하신 뒤, 성 다비드 수도원에 보낸 편지에서 바르톨로메오 세계총대주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야고보스 원로는 그의 부드럽게 빛나는 인격과 함께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가 안티오키아의 멜레티오스 성인(+381년 안식. 주교)에 대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곧, ‘그가 가르칠 때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를 한 번 보기만하면 덕스러운 가르침 전체가 원로를 바라보는 그들의 영혼 안에 가득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첫째로 성인은 성찬예배를 위해 살았습니다. 성인은 날마다 떨리는 두려움으로 자신을 헌신하며 성찬예배를 거행하였습니다. 성인이 소수의 사람에게 말씀하신대로, 성인은 헤루빔, 세라핌 천사들, 그리고 여러 성인들과 함께 예배를 집전하셨습니다. 성인은 성찬예배 준비예식을 거행하는 동안 천사들이 함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고 느낄 때면 성인은 성찬예배를 시작하기 전, ‘주님, 제가 허약하게 느껴집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으며, 그런 뒤에는 마치 날개가 달린 것처럼 힘차게 예배를 거행하였다고 합니다.

성인의 삶에서 드러난 또 다른 특징은 다른 성인들과 가졌던 관계입니다. 성인은 특별히 다비드 성인(16세기, 그리스 에비아섬)과 러시아인 요한 성인(1690-1730)을 신뢰하였고, 말 그대로 그들을 자신의 친구로 여겼습니다. 한 번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되어있을 때, 야고보스 성인은 두 성인에게 도와달라고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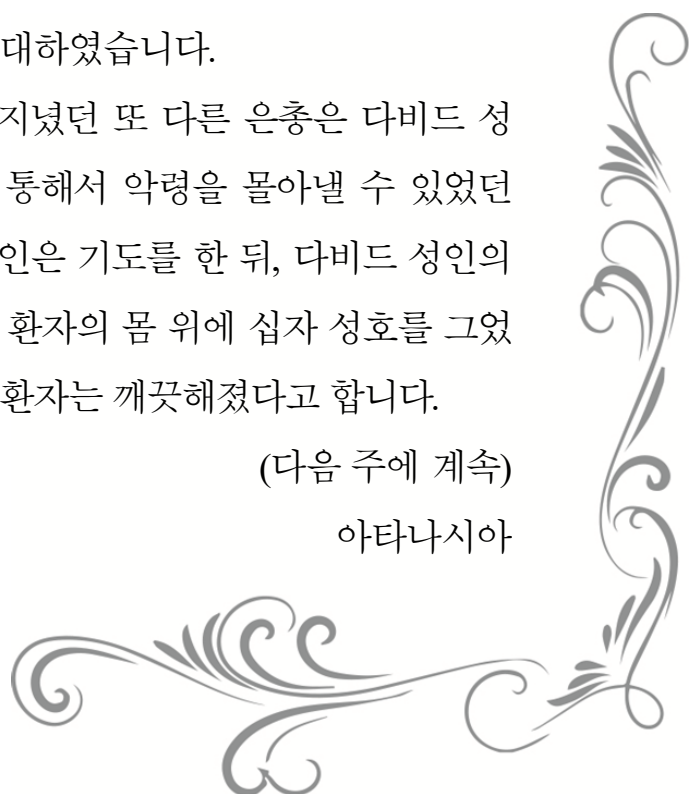
하였고, 그러자 10분도 안되어서 두 성인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성인의 또 다른 미덕은 자선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성인은 수도원을 찾는 방문객 가운데 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지를 알 수 있었으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불러 돈을 주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성인은 자신의 자선행위가 알려지는 것을 극구 반대하였습니다.

성인이 지냈던 또 다른 은총은 다비드 성인의 기도를 통해서 악령을 몰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인은 기도를 한 뒤, 다비드 성인의 성해(聖骸)로 환자의 몸 위에 십자 성호를 그었으며, 그러면 환자는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

아타나시아





대교구

■ 소티리오스 대주교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8월 6일 축일을 맞이하는 소티리오스 대주교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 성모안식 축일 준비

8월 15일 성모안식 축일을 맞이하여,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엄격한 금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매일 오후에 <성모소기원의식> 예배를 드립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신자들께서는 미리 성당사무실에 신청하시고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성모소기원의식> 예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식을 통해 영적, 육적으로 우리들의 욕구와 욕망을 절제하면서 축일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8월 6일 구세주 변모 축일에는 생선류만 허용됩니다.)

■ 구세주 변모 수도원 축일

코로나19로 인해 매년 해오던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 축일 행사는 거행되지 않습니다. 각 지역성당에서는 축일예배를 지역의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거행해주시고, 소티리오스 대주교님을 위한 기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세례를 축하합니다

지난 7월 24일(토)에 김태원 교우가 안토니오스라는 세례명으로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 집전의 세례성사를 통하여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축복으로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정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길 기원합니다.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

■ 성당 지붕 공사

성당의 지붕이 세월의 흐름과 비로 인해 지속적인 누수문제가 있었고, 누수로 인해 성당 내부의 성화도 손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붕의 누수공사와 성당 외부 전체 페인트칠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업체 중 가장 적합한 업체를 신중하게 논의하면서 결정하였고, 하느님의 축복으로 지난 7월 16일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24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공사기간 중 매일 공사사항을 지켜봐 주신 신자들과 재정적으로도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주일학교 여름 특별 프로그램

코로나로 여름 수련회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간단한 프로그램을 24일~25일 진행하였습니다. 24일 오전에 먼저 중고등학생 학생들과 함께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님께서 “친교-휴대폰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들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절제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주셨고, 오후에는 초등학생들과 함께 부모님과 형제들과의 친교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대만과를 함께 드렸습니다. 25일 주일에는 성찬예배를 드리고 모든 프로그램을 마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과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8월6일(금)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변모 축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및 성찬예배